

복가주 온전케 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공과 1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

성경: 출 20:1-17; 34:28; 31:18; 신 4:13; 시 19:7-8; 요 5:39-40

- I. 율법은 신성한 계명들의 열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 A.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다만 율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 B.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3 장의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12-14 절.
 - 1.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해야 하며, 접촉해야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한다.
 - 2.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주입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할 것이다—비교 롬 8:4.
 - 3.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된 주님께 속한 것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지킬 것이다.
 - C.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산, 곧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본질로 주입되는 곳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비교 출 19:3, 20.
 - D. 우리는 율법을 다만 계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출 20:1, 각주 1.
- II.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마 22:36-38)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도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루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 A. 시편에 의하면 기자들은 율법을 극도로 사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소극적인 것이라고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기자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
 - 1.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시편 18:1); 73 편 25 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간증이 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 2. 시편 기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추구했다; 시편 42 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했다—1-2 절.
 - 3. 시편 27 편 4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기자의 갈망을 본다; 시편 기자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다.
 - 4. 시편 27 편 4 절은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는 것이다.
 - 5. 또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다(52:8); 마치 나무가 땅에서 풍성을 흡수하듯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았으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다—비교 92:13-14.
 - 6. 시편 92 편 10 절은, “...나는 신선한 기름과 연합 될 것이니이다”(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구약의 기름은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신선한 기름과 연합되는 것은 신선한 영과 연합되는 것이다.

7. 시편 기자들은 또한 생명의 풍성을 누렸다(시 36: 8-9); 하나님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그분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 생명 공급의 근원이 있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시편 기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삼일 하나님을 누렸다.
8. 시편 기자들은 그분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받았다(119:57);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취했다.
9.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119:14, 72, 127); 이 구절들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그분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10. 시편 119 편 103 절은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음을 나타낸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맛은 얼마나 귀했겠는가!
11.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다(시 119:147-148); 새벽 전의 이른 아침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다; 이로써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다는 것을 본다.
12. 이 모든 구절들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 나타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해야 한다.

B.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중에 있었다—눅 2:25-27, 37:

1.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다—25 절.
2. 또한 그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 영으로 행했다—26-27 절.
3.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37 절.
4.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분의 주입하심을 받았다; 시편 기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냈으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과 일치되었다.
5. 하나님의 본질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인 율법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C.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인 유대교도들을 보기로 하자:

1. 율법이 시편 기자들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의 손에 있을 때 율법은 소극적인 것이 되었다—비교 행 15:1; 갈 1:7; 2:4.
2. 마태복음 15 장 8 절에 의하면, 유대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 갈라디아서 6 장 12 절과 13 절에 의하면,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 의무적이었고, 교리적이었다.

D.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빌 3:5-6:

1. 유대교도로서 그는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였고,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딤후 1:13
2. 그가 유대교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

III.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원칙이 동일함을 본다:

- A.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면,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
- B.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 C. 시편 기자들과 유대교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추구하고, 유대교도들은 하나님과 전혀 분리되어 율법을 추구했다는 것이다—비교 요 5:39-40.

사역에서의 발췌: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스런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임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메세지의 제목인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임”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율법은 신성한 계명들의 열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다만 율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3 장의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좇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해야 하며, 접촉해야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주입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된 주님께 속한 것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철저히 주입되었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산, 곧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본질로 주입되는 곳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만 계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II.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

A.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이제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마 22:36-38)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도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체험과 신약의 시므온과 안나의 체험을 상고해 보자.

1. 시편 기자들

시편에 의하면 기자들은 율법을 극도로 사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소극적인 것이라고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기자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 수년 동안 이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시편 강해”에서 시편 1 편에 있는 율법과 시편 2 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율법을 경시했다. 나는 문자적인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이 정확하다고 믿는다. 만일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놓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옳다. 이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나타내는 시편의 단락들을 상고해보자.

a. 하나님을 사랑함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시편 18 편 1 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한다. 73 편 25 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간증이 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b. 하나님을 추구함

시편 기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추구했다. 시편 42 편 1 절과 2 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라고 말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했다. 시편 43 편 4 절은, 기자가 극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했는가를 보여주며, 119 편 2 절과 10 절은, 기자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는가를 보여준다.

c. 하나님과 함께 거함

시편 27 편 4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기자의 갈망을 본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께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다. 비슷한 갈망이 84 편 1 절부터 7 절에도 나타난다. 이 구절들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달콤함에 감동된다.

시편 90 절 1 편은 이렇게 선포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갈망을 본다. 동일한 갈망이 91 편 1 절에 나타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문자적인 율법외에 어떤 것을 본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갈망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요소로 주입될 것이다.

d. 그분의 아름다움을 봄

시편 27 편 4 절은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는 것이다. 105 편 4 절에 동일한 갈망이 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e. 하나님의 풍성이 주입됨

또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다. 시편 52 편 8 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풍성을 흡수하듯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았으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다. 감람나무처럼 그들은 자기 안에 주입된 풍성에 의해 자랐다.

시편 92 편 13 절과 14 절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됨에 관한 네 방면을 본다. 첫째는 집에 심겼음이고, 둘째는 흥왕함이고, 셋째는 결실함이며, 넷째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함이다. 이상의 항목들은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니라, 생명 공급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시편 기자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의 풍성으로 주입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심겨졌고, 흥왕했고, 결실했고, 진액이 풍족했으며, 빛이 청청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입을 통하여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살아 낼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시편 기자들의 체험은 원칙적으로 신약에 계시된 것과 동일하다. 요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자신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주입하시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우리 안으로 흡수한다. 그럴 때 우리는 결실 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살아 나타내는 문제이다.

시편 92 편 10 절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뿌를 들소의 뿌같이 높이셨으며, 나는 신선한 기름과 연합 될 것이니이다”(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구약의 기름은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신선한 기름과 연합되는 것은 신선한 영과 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율법을 배우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선한 영과 연합되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복하거나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됨으로써 율법을 살아내야 한다.

f. 생명의 풍성을 누림

시편 기자들은 또한 생명의 풍성을 누렸다. 시편 36 편 8 절과 9 절은,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신약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원칙적으로 시편 기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삼일 하나님을 누렸다. 하나님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그분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 생명 공급의 근원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음을 본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으로 주입되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았다. 자동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살아냈다.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율법을 살아 낸 자들이었다. 이런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g.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받음

더욱이 시편 기자들은 그분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받았다. 시편 119 편 57 절은,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있는 두 요점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음을 본다. “분깃”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성도의 분깃이라고 말할 골로새서 1 장 12 절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율법을 의미함)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취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우리는 이렇게 하기에 충분치 않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될 필요가 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체험은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체험과 동일하다.

h.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 시편 119 편 14 절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재물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귀하게 여겼다. 계속하고 119 편 72 절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119 편 127 절에서 기자는 계속하여,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그분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금은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i. 율법의 달콤함을 맛봄

시편 119 편 103 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음을 나타낸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맛은 얼마나 귀했겠는가!

j.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위에 거함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다. 시편 119 편 147 절과 148 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목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났나이다”. 새벽 전의 이른 아침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다. 이로써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다는 것을 본다.

이 모든 구절들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 나타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 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낼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율법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목상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그분 위에 거해야 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전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이다.

2.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중에 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다(눅 2:25). 또한 그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눅 2:26), 그들은 그 영으로 행했다(눅 2:27).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눅 2:37).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분의 주입하심을 받았다. 시편 기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냈으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과 일치되었다. 하나님의 본질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인 율법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B.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

1. 유대교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인 유대교도들을 보기로 하자. 율법이 시편 기자들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의 손에 있을 때 율법은 소극적인 것이 되었다. 마태복음 15 장 8 절에 의하면, 유대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 갈라디아서 6 장 12 절과 13 절에 의하면,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 의무적이었고, 교리적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마음이 있는 시편 기자들과 그들은 얼마나 다른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풍성했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도처럼 의무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았다.

2. 다소의 사울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빌 3:5-6). 유대교도로서 그는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였고,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딤후 1:13). 그가 유대교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 돌이켰을 때, 이런 이유로 율법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잘못 사용된 율법을 경시했다.

III.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원칙이 동일함을 본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면,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과 일치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 간증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구약 성도들의 누림이 신약 성도들의 누림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으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살아 나타낼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일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을 살(live)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607-6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1.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복가주 온전케 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공과 2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누렸는가

성경: 시편 119:1-2, 14-16, 20, 30-36, 40, 42-43, 45, 47-48, 54-59, 66, 70-74, 77, 80, 87, 92-95, 97-103, 111-114, 117-119, 127-135, 140, 147-148, 157-159, 161-170, 172-174, 176

I.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누렸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시 119:

- A. 시편 119 편 2 절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렸던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음을 말한다. “여호와와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 편 기자는 이러한 추구하는 자였다 —찬송가 812 장, 5 절.
- B. 시편 119 편 132 절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시편기자가 주의 이름을 사랑했음을 나타낸다.
- C. 시편 119 편 58 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였사오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만일 주의 얼굴, 곧 그분의 안면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얻을 것이다 —찬송가 812 장, 2-3 절.
- D.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또한 주의 얼굴로 그들을 비추시기를 기도했다 (135 절, 비교 고후 4:6). 그들은 다만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추구했으며, 그분의 얼굴을 자기들에게 비추시기를 구했다.
- E.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취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할 것이다 —119 편 168 절.
- F.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이며 양식이며 물이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공급이다 —딤후 3:16, 마 4:4, 요 6:63, 사 55:10-11.

II.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호흡, 음식, 생수를 받기 위해서 시편기자가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 A. 믿기 (119:66);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첫번째 요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정확함과, 권위와, 능력을 믿어야 한다 —비교 요 5:24.
- B. 선택하기 (시 119:173);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택인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결정을 해야한다.
- C. 손을 들기 (119:48);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은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스하게 받고, ‘아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 D. 사랑하기 (47, 48, 97, 113, 119, 127, 140, 159, 163, 165, 167 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어떠한 책도 성경만큼 사랑스럽지는 않다.
- E. 기뻐하기 (16, 24, 35, 47, 70, 77, 92, 174 절); 말씀 안에서 찾아지는 기쁨이 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
- F. 맛보기 (103 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양분과 생명공급을 위한 그분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달콤한 맛을 누릴 것이다 —비교 벧전 2:2-3.
- G. 즐거워하기 (시 119:14, 111, 16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는 침묵함으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 H. 노래하기 (54 절); 시편기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기도 했다. 우리는 시편기자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비교 골 3:16.
- I. 존중하기 (시 119:6);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 J. 건강한 마음을 갖기 (80 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마음은 건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어떠한 영적인 병도 없다.
- K. 마음을 기울이기 (36 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울여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 L. 추구하기 (45 절), 갈망하기 (40 절), 기도와 함께 바라기 (147 절), 신뢰하기 (42 절); 만약 우리의 마음이 바르다면, 우리는 말씀을 추구할 뿐 아니라, 갈망하고, 바라고, 신뢰할 것이다.
- M. 목상하기 (15 절); 말씀을 목상하는 것은 소가 풀을 먹듯이 ‘새김질하는 것’이다 (레 11:3). 목상의 히브리어 단어는 경배하기, 자신과 대화하기, 크게 말하기를 내포한다. 말씀을 목상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함을 통해서 말씀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기도, 자신과 대화하기, 주님을 찬양하기도 말씀을 목상하는 것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것이고 (딤후 3:16),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영적인 양분을 받는 것이다.
- N. 고려하기 (시 119:95); 하루종일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목상하며 누렸던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에서 주님을 누렸던 것을 되돌이키며, 우리는 말씀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받는다.
- O. 모든 것에 대해 말씀을 옳다고 높게 여기기 (128 절); 여기에서 ‘옳다’는 단어는 모든 것에서 서 있다, 끝다, 엄격하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말씀을 목상하고 고려할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말씀이 똑바로 서 있다고 여길 것이다.
- P. 들어가기 (130 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자. 말씀 안에 빛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곳을 비추는 빛 안에 있을 것이다.
- Q. 배우기 (71 절); 이 구절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환경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배운다.
- R. 귀히 여기기 (162, 14, 72, 111 절);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적을 패배시킬때, 우리는 정복당한 적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요함과, 금과 은과, 유산을 가질 것이다.
- S. 마음에 감추기 (11 절);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숨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야 한다.
- T. 기억하고 잊지 않기 (52, 93 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감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 U. 경외함으로 서기 (161 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
- V. 고수하기 (31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
- W. 그만두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기 (87, 51, 102, 110 절);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아야 한다.
- X. 발길을 돌리기 (59 절);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발길을 그 안으로 돌려야 한다.
- Y. 지키고, 관찰하고, 실행하고, 행하기 (33 절); 시편 119 편에서 우리는 최소한 28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관찰하고, 실행하고, 행하도록 격려된다.
- Z. 말씀 안에 걸고 그 길을 달려가기 (1, 32 절); 시편기자는 말씀 안에서 걸었고, 말씀의 길을 달려갔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역에서의 발췌: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누렸는가

시편 119 편은 율법에 관해 특별히 강조한 시편이다.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긴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스물 두 개의 알파벳에 각각 여덟 구절씩을 포함하여 총 스물 두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백 칠십 육 구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에베소서 전체보다 더 많은 구절을 포함한다. 이것은 긴 시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기 어렵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앞의 메시지들은 분명 시편 119 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시편 기자는 신학에 따라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느낌과 체험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깊은 갈망을 따라서, 또한 율법에 대한 누림을 따라서 기록되었다. 시편 기자들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망을 표현했다. 모든 시편들처럼, 119 편도 교리 아닌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131 절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헐떡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42 편 1 절에서도 사용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내 혼이 주를 찾아 헐떡이나이다. 어떤 번역본의 각주는 ‘헐떡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불타는 더위를 겪은 후에 시원한 샘을 사모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시편 119 편 131 절과 42 편 1 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 시편 기자들의 깊은 정서와 갈망을 보여준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며 헐떡였다. 따라서 시편 119 편은 율법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교리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말한다. 이 시편은 누림의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율법을 누렸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함

시편 119 편 2 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여호와와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 편 기자는 이토록 추구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는 말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시편 119 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허무한 것이다. 이것은 바울 시대의 유대교도들의 심각한 결핍이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함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해야 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억함

시편 119 편 132 절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시편기자가 주의 이름을 사랑했음을 나타낸다. 55 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말한다. 밤중에 일어났을 때 시편기자는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밤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은 우리의 참된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밤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만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면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당신의 특별한 관심이 될 것이다. 나는 청년들이 밤중에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것들 안에 거하지 않고 달콤하고 귀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디 우리 모두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한 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주의 얼굴을 구함

시편 119 편 58 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였사오니”라고 말한다. 흥정역은 ‘얼굴’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만일 주의 얼굴, 곧 그분의 안면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얻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엄마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 그들에게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것이 없다. 우리 또한 것처럼 친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주님의 얼굴은 추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 시편기자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뿐이었다.

시편 105 편 4 절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42 편 5 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개인적으로 깊고 친밀하게 시편기자는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했다.

주의 얼굴로 비추시기를 구함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또한 주의 얼굴로 그들을 비추시기를 기도했다. 시편 119 편 115 절은,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민수기 6 장 24 절부터 26 절까지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두번째 방면에 근거한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삼중 축복은 분명히 삼일성의 축복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의 축복과 아들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들의 축복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비취는 주의 얼굴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얼굴의 비취심을 구하는 기도는 시편 4 편 6 절과 80 편 3 절, 7 절 19 절에서도 발견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구약의 추구하는 성도들은 다만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추구했으며, 그분의 얼굴을 자기들에게 비추시기를 구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의 비추심을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분이 얼굴을 비취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취심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주의 얼굴의 비취심을 느끼려면 우리에게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의 비취심을 느낄 것이다. 고린도 후서 4 장 6 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 비취심을 체험할 수 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그분의 얼굴의 비취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주의 임재 안에서 행함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할 것이다. 119 편 116 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주님과 하나였다는 분명한 암시이다.

하나님과 하나 됨은 신약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지만 구약에도 이에 대한 암시가 있다. 시편 90 편 1 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대”라고 말한다. 모세가 쓴 이 구절은 그가 주님을 그의 거처로 체험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의 집이요 거처였다. 그러나 모세가 ‘대대에’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함을 체험했음을 말해준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했다. 그들은 그분과 하나였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겠는가? 시편을 주의깊게 연구해 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에 대한 인식과 누림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거처로 체험하며 그분 안에 거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함

거듭거듭 시편 119 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다. 율법과 말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거나 요구하는 계명이다. 율법은 명령을 하지만 그 자체로는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21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능히 생명을 주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의 호흡이다(딤후 3:16).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이며 양식이며 물이다. 그것은 우리 일상 생활의 공급이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율법 자체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한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호흡이나 양식이나 물이나 영양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유대교도들과 똑같이 율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율법 자체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생명과 호흡과 양식과 생수를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 장 63 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시편 119 편에서 기자는 최소한 서른 일곱번이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 시편기자는 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선포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음을 증명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단지 흑백의 문자로만 대하고 읽을 때 주님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은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생명을 준다”(고후 3:6)고 말했다. 이 구절에 있는 의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 3 장 15 절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이다. 성경을 단지 문자로만 취한다면 그것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영은 생명을 준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체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될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근원을 만져야 한다. 이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을 통하여(딤후 3:16) 하나님을 우리 안에 호흡해 들일 수 있음을 수차 지적했다. 흡을 잡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만 따서 인용하여 왜곡시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으로 호흡해 들일 수 있음을 가르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며 육신에 속한 말이라고 부른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호흡이다. 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안에 호흡해 들이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우리는 체험 안에서 이것을 사실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접근할 때 ‘낮’에 있을 수도 있고 ‘밤’에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의 공화로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성경에 관해 ‘낮’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일몰 아닌 일출을 체험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밤’에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있다고 말했다(고후 3:15).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천연적인 관념에 의해 가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체험에서는 성경이 죽은 의문의 책이 된다. 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교도들과 같이 그들은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말씀을 대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천연적인 이해에 의존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종종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낸다. 그러나 말씀에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올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며 그분을 누리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래의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다.

주께 가까이와 주 언길 갈망해
주 먹고 마셔 주님을 누리기 원하네

주 얼굴 뵈기를 내 맘 사모하여
주 접촉하며 영 안에 충족함 얻네
(찬송가 588 장)

말씀을 읽거나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얼굴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생명 공급과 영양 공급의 근원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게 될 것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6)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소가 풀을 먹듯이 ‘새김질하는 것’이다(레 11:3).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새김질’을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너무 빨리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누림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 ‘새김질’한다면, 우리의 누림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소가 새김질하듯이 되씹음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것이다. 기도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포함된다. 더우기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께 찬양을 발하기를 원하게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기보다 더 느리고 자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 장 2 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분은 너를 애굽 땅 속박의 집으로부터 구출하셨다. 이제 너 나왔다. 아멘! 오 주여, 나를 속박에서 구출하신 당신께 경배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거나 우리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림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하거나, 말씀을 숙고하거나, 기억하거나 자신을 꾸짖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실행에 포함된다. 참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산 방식으로 십계명을 묵상한다면, 그는 주님을 누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확실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는 자는 그것을 죽은 의문으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주입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호흡하며,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을 묵상함에 관하여 147 절은 말한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여기서 우리는 시편기자가 새벽 전에 일어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음을 본다. 148 절에서도 계속 말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중에 깨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숙고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실행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누림을 우리는 충분히 다 묘사할 수 없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은 그분의 산 말씀에 잠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방법은 오늘날 주로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여 의문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심지어 그분께 절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그분의 긍휼과 구원과 은혜로운 공급을 자신에게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도로 읽기보다 더 부요하고, 더 넓고, 더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기도, 경배, 누림, 대화, 절함,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치며 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천로역정에서 순례자가 성경을 읽고, 울고, 외치고, 회개하는 곳이 나온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울거나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할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7)

추가로 읽을 말씀:

1.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6, 57

복가주 온전케 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공과 3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기능

성경: 요 5:39, 벰전 1:23, 딤후 3:16-17, 시 119:105, 엠 5:26, 6:17, 히 4:12, 램 15:16, 23:29, 사 55:10-11, 요 6:63

- I.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기능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다—시 119:50, 요 5:21, 6:63:
- A.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므로, 하나님과 하나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을 그 사람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딤후 3:16:
1.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음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범한 오류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결과 그들의 손에 성경이 죽은 문자들의 책이 되게 된다—요 5:39-40.
 2. 생명은 살아있는 인격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우리는 성경을 이 살아있는 인격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요일 5:11-12, 요 1:1.
 3. 골로새서 3 장 16 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격이어야 한다:
 - a.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며, 그분의 풍성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엠 3:8, 행 20:32.
 - b.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 움직이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들로 적셔지게 한다—엠 3:17, 골 3:16.
- B.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모든 기능은 살아있는 인격의 행동과 활동이다. 사실상,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1.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살아계신 분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주입되고, 그분으로 적셔짐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신다—요 5:39-40.
 2.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접촉하기를 실패한다면, 우리의 체험 가운데 말씀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 C.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자체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다.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이고, 개인적이며, 살아있고,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 만이,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호흡함으로 살 수 있다—딤후 3:16, 찬송가 (영한동번) 812 장:
1.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접촉하는 방식은 그의 친밀한 느낌과 깊은 열망의 표현으로서 그의 전 존재를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추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시 119:10, 131, 145, 147, 169.
 2.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접촉한다면, 말씀은 죽은 문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살아계신 분을 접촉할 것이다—엠 6:17-18, 찬송가(영한동번) 801 장.
 3. 우리가 살아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호흡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게 된다. 그러할 때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풍성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비교 시 1:2-3.

II.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성경의 기능을 볼 필요가 있다:

- A.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다—요 5:39, 46, 눅 24:27, 44, 46.
- B.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통로를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딤후 3:15.
- C.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씨 뿌려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벧전 1:23, 약 1:18.
- D.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며,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한다—딤후 3:16-17.
- 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할 내적인 힘을 주며,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격려와 소망을 준다—롬 15:4.
- F.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간 어떤 이들의 체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한다—고전 10:11.
- G.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과 같고 우리의 길에 빛과 같다.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하여 우리가 길을 잃거나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벧후 1:19, 시 119:105, 잠 6:23.
- H.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주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준다—시 119:130.
- I.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순수하게 지켜준다—시 119:9.
- J.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경고하여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게 한다—시 119:11.
- K.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의 검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다—엡 6:17.
- L.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사상들과 의도들을 분별할 수 있다—히 4:12.
- M.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렘 15:16, 마 4:4, 욥 23:12, 히 5:14.
- N. 성경은 단단한 음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젖이기도 하다—벧전 2:2, 고전 3:1-2, 히 5:12-14.
- O.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을 씻으며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더러움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내적으로 씻으며 옛 창조에 속한 약함들에서 우리를 해방한다—엡 5:26, 요 15:3.
- P.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차갑고 딱딱한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반대되는 사람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렘 23:29, 5:14.
- Q.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이슬과 풍성한 소나기와 눈과 같아서, 우리를 적시고 신선하게 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신 32:2, 사 55:10-11.
- R.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참된 모습과 상태를 반사한다—약 1:23.
- S.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시 19:7-8.
- T.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우리가 그 영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 영을 따라 살게 한다—요 6:63.
- U.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잠 4:20-22, 16:24.
- V.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언자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조언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경에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시 119:24.
- W.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다.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일을 위한 견고한 기초이다—마 7:24-25.

사역에서의 발췌:

성경의 기능

1.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 5:39, 참조 46 절, 눅 24:27, 44, 46).

성경의 기능 중 첫째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와 내용이시고, 성경은 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살아 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그 실재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공허한 교리나 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그분의 표현으로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분은 추상적이시고 막연하실 것이며, 그분을 알고 만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분명한 계시와 함께 성경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신약의 책들은 주 예수님을 계시하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서와 신언서들과 시편과 시가서들을 포함한 구약의 책들도 주 예수님을 계시한다. 율법서와 신언서와 시편들은 구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부분이다(눅 24:44). 주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2. “그대가...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딤후 3:15).

한 면에서 성경은 주 예수님에 관해 증언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또 다른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건축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섬긴다. 우리와 관련하여 성경의 기능 중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통로를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거듭나게 된 것” (벧전 1:23, 참조 약 1:18).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성경은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생명의 씨처럼 우리 안에 심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씨 뿌려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4.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딤후 3:16-17).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며, 의로 교육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로서 그분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롬 15:4).

성경의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며 격려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한다. 많은 믿는 이가 어려움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인내하지 못한다. 그들은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는다. 그러나 다만 성경의 한 단락을 읽을 때, 심지어는 단 한 문장만 읽어도,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하고, 격려와 소망을 준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에 의해 도움을 받고 견고하게 된다.

6. “본보기...성경에 기록된 것은...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 (고전 10:11).

성경에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본보기로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간 어떤 이들의 체험을 통해 경고를 받아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도움이다.

7.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벧후 1:19).

성경은 종종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롬 13:12). 이러한 어둠 가운데 성경은 비추는 등불과 같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앎으로써 우리가 길을 잃거나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 비춤을 받고 총명해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빛 비추게 해야 한다.

8.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참조 잠 6:23).

어둠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발길을 비춰 줄 등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행할 때, 참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비춰 줄 하늘에 속한 등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등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발길을 비춰 줄 것이다.

9.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성경에서 오는 빛은 우리의 발과 길을 비춰 줄 뿐 아니라 또한 단순한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준다. 선천적으로 단순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해력을 얻어 왔다. 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의해 빛 비춤을 받아야 한다.

10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시 119:9).

성경 말씀은 빛 비추는 능력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둠과 대조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은 더러움과 대조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럽고 어둡다. 성경 말씀은 우리 발에 비추어질 때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성경 말씀은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자주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빛 비춤을 받을 뿐 아니라 순수하게 지켜질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통과할 것이고 빛 비추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대나무 바구니를 물에 넣는 것과 같다. 비록 물은 새어 나가지만 그 바구니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순수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한다.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시 119:11).

성경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안에서 자랐으며 아주 쉽게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성경 말씀을 저장해 둔다면 그 말씀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상기시키고 경고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12. “그 영의 검” (엡 6:17).

성경 말씀은 그 영의 검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사탄과 그의 전달자들을 처리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 주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을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유혹하는 자, 마귀를 패배시키셨다. 그러므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친숙해져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히 4:12).

성경 말씀은 칼보다 더 날카롭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사상들과 의도들을 분별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리한다. 성경 말씀은 또한 사상들과 의도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적인 상태 전부를 폭로한다. 우리 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항상 살아 있고 효력이 있다. 성경 말씀은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우리 속에 아무리 많은 혼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참된 상태를 폭로하여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얼굴에서 오는 빛 비춤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자아와 자아에 속한 생각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분의 뜻 안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14. “내가…먹었사오니” (렘 15:16, 참조 마 4:4, 욥 23:12, 히 5:14).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이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자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자양분이 필요하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고 강하기를 원한다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먹어야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 안에 있는 더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먹는 것과 훈련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15. “말씀을 젖” (벧전 2:2, 참조 고전 3:1-2, 히 5:12-14).

성경은 단단한 음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젖이기도 하다. 단단한 음식은 성인을 위한 것이고, 젖은 유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강화시키는 단단한 음식의 영양분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미숙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할 때, 성경 말씀 가운데 젖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거듭난 믿는이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들로 남아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16. “씻는”, “깨끗해졌으니” (엡 5:26, 요 15:3).

성경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을 씻으며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더러움을 제거한다.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를 내적으로 씻으며 옛 창조에 속한 약함들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은 이러한 씻음에 대해 언급한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수를 사용하시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씻으시면서 옛 창조에 속한 점과 주름을 제거하신다. 점과 주름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에서 얻는 오염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 창조에 속한 생명의 약함과 관계가 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협력하시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점과 주름을 씻어 내신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협력하시는 성령은 자주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나 문장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신다. 이러한 씻음은 성경 말씀의 한 기능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5 장만이 아니다. 요한복음 15 장 3 절은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으니”라고 말한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들과 관계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지들을 외적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낡은 모든 것은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과 관계된다. 내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옛 창조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됴으로써 새 창조 안에서 자라야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씻는 능력과 기능을 발휘한다.

17. “불 같지 아니하나...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렘 23:29; 참조 5:14).

성경 말씀은 능력이 넘친다. 성경 말씀은 태우는 불 같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음같이 차가운 마음들을 불태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반대되는 사람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 성경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한 마음들을 부서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사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했던 수많은 마음이 성경 말씀에 의해 불태워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했던 수많은 마음이 성경 말씀에 의해 부서졌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반대되는 많은 것이 성경 말씀에 의해 불태워졌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많은 사상이 성경 말씀에 의해 굴복되었다. 성경 말씀에는 참으로 사람의 차갑고 단단한 마음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18. “비처럼 내리고...이슬처럼 맺히나니...풍성한 소나기 같도다” (신 32:2).

성경 말씀은 비와 이슬과 풍성한 소나기와도 같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를 신선하게 한다. 비는 일반적으로 물로 적시는 것이고, 이슬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신선하게 하는 것이며, 소나기는 특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농장(고전 3:9)인 우리, 곧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수확물(막 4:20, 고전 3:6)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발휘한다. 성경 말씀은 비와 이슬과 소나기와도 같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적시고 신선하게 한다.

19. “이는 비와 눈이...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사 55:10-11).

성경 말씀은 비와 같을 뿐 아니라 또한 눈처럼 신선하게 한다.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내리지만 겨울에는 눈이 온다. 신선하게 하는 비는 빠르고 짧게 내린다. 그러나 신선하게 하는 눈은 천천히 오래 내린다. 이러한 비유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신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때때로 우리는 비처럼 빠르고 짧게 신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눈처럼 더 느리고 길게 신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선하게 하는 것이 비와 같은 아니면 눈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위에 성취할 것이다(11 절).

20. “거울” (약 1:23).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참된 모습과 상태를 반사한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참된 용모를 보며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게 된다. 성경 말씀 앞에 나올 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

21. “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 19:7-8).

성경은 달콤한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의 혼을 소성시키며 신선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은 이러한 기능들을 나타낸다. 우리의 혼이 침체될 수 있지만 성경의 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신선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둔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는 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한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오는 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22.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6:63).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따라서 그것은 그 영에게서, 생명으로부터 온다. 말씀의 근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과 생명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 영을 따라 살게 된다.

23. “내 말에 주의하여…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 4:20-22; 참조 16:24).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혼을 복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치유할 수 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혼은 신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되며, 우리의 몸은 치유된다. “마음이 즐거우면 살이 찐다.”라는 속담이 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24. “조언자들” (시 119:24).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조언자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성경 말씀은 종종 그 어떤 조언자나 전략가나 상담사들의 생각이나 제안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우리는 최고의 조언자인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숙고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조언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경에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

25. “반석…과 같습니다…” (마 7:24-25).

성경 말씀은 반석과 같다. 성경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견고하다. 우리의 생활과 일이 성경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일은 반석 위에 건축된, 견고하고 믿음직한 집처럼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일의 견고한 기초이다. 이것이 성경의 또 다른 기능이다. (성경의 주제별 연구 성경의 중점 진리 3 권, 31 장, 138-1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1.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8
2. 성경의 주제별 연구 성경의 중점 진리 3 권, 31 장

복가주 온전케 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공과 4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

말씀 읽기: 시 119:130, 105; 19:8 하; 119:25, 50; 1:1 상, 2-3; 19:7 상; 119:41, 110, 170, 28, 76, 103, 116-117, 11, 57-58, 65, 98-101, 114, 133, 135, 169, 175; 19:7 하

- I.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 때마다 축복을 얻을 것이다—시 1:1-3; 참조 계 1:3**
- A.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에 올 때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히 4:2; 3:10, 12:
1.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 없을 수 있다—행 28:27, 각주 1.
 2.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눅 11:34-36; 참조. 마 5:8; 막 12:30.
 3. 우리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마 15:8.
 4. 우리 마음에 가리운 것과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후 3:15:
 - a. 우리를 에워싸고 점령하고 소유한 어떤 죄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다루실 것을 꺼릴 수도 있다—마 13:5, 각주 1.
 - b.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하며 그분에게 설득 당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우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다.
- B.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소극적인 마음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후 3:15-16.
- C.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우리의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마 11:25-26; 눅 1:53; 요 9:41.
- II.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보아야 한다:**
- A.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시 119:130, 105; 19:8 하:
1. 말씀에 오는 것은 빛 비추어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빛 비추어진 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만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2. 말씀은 신성한 빛의 농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올 때마다 빛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간다; 그 때 자연스럽게 빛을 받고 절대적으로 빛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요일 1:5; 시 119:130; 36:9.
- B.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생명이 되는 빛의 축복을 누린다—119:130 상, 105, 25, 50:
1. 생명은 빛에서 오고, 빛은 생명에 이르는 열쇠이다. 생명의 양은 빛의 양에 정비례한다—창 1:3-25.
 2. 빛이 생명이 될 때까지 더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빛이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 안으로 도달할 때, 생명이 되고, 우리는 생명공급을 받는다—말 4:2.
- C.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적셔진다—시 1:2-3:
1.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살아 있는 식물이고, 지금은 우리의 뿌리를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있다—고전 3:9; 골 2:19.

2. 말씀으로 적셔지려면 생명 공급을 흡수하는 합당한 뿌리와 섬세한 뿌리털을 가져야 한다—막 4:5-6, 17; 눅 8:6.
- D.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부흥되고 (시 19:7 상), 구원받고 (119:41, 170), 강건하게 되고 (28 절), 위로 받고 (76 절), 영양분을 얻고 (103 절), 격려 받으며 (117 절), 보호를 받는다:
1. 시편 119 편 28 절의 힘에 관련된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적으로 채우고 활력화하는 것이다.
 2. 우리 자신 안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서게 하는 살아 있는 부축은 우리를 계속해서 받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117 절; 참조 히 1:3.
- E.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누린다—시 119:57 상:
1.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분깃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미덕들이거나 속성들이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73:25-26.
 2.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만유를 포함한, 아주 효과적인 교정 수단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만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며, 모든 근심에 대한 치료이시다.
- F.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고 그분의 얼굴의 빛남을 누린다—119:58 상, 135 상:
1.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하는 데 신실하다면 그분의 얼굴의 빛 비춤을 체험할 것이다—고후 4:6; 3:16, 18.
 2. 우리의 갈망은 말씀을 통해 이 기쁘고 즐거운 비춤 아래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을 주입 받으며, 하나님으로 빛나는 것이다—출 34:29.
- G.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린다—시 119:114:
1. 은신처이신 주님은 우리의 안식과 생활을 위하지만 (32:7; 31:20; 17:8), 방패이신 주님은 전투 중에 보호가 되신다 (창 15:1; 시 3:3; 84:11; 엡 6:16).
 2. 우리의 은신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사방에서 - 위아래, 앞뒤, 좌우 - 우리를 가리고 숨기신다—시 91:1-9; 참조 125:2.
- H.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을 누린다—119:175 하, 65:
1.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분의 도우심은 포괄적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신다—시 23:1.
 2. 우리가 살아 있는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선대하심을 누리게 된다.
- I.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 이해, 분별 그리고 지식으로 누린다—119:66, 98-100, 169; 19:7 하:
1. 지식은 사물을 아는 일이다. 지혜는 우리 안의 깊은 것에 관한 것이고 주로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이해는 지혜와 지식을 다 포함한다.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모두 합하면 분별을 가지게 된다.
 2.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편 기자는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을 얻었다.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 J.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죄나 장애물이나 모든 악한 길에서 보존된다—119:11, 165, 101:
1. 말씀을 누림으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자와 이기는 자로 만든다—133 절; 참조 요일 2:14.

사역에서의 발췌: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 이 기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그분의 율법을 통하여 받은 축복이다.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도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연구까지 하지만 성경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축복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는 것은 단지 공허한 지식뿐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 얻은 지식으로 성경 안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논쟁한다. 성경을 읽음으로 참된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쟁한다. 그 결과 그들은 약간의 성경 지식으로 먼저 그들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죽이는 책이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 때마다 많은 축복과 은혜를 얻을 것이다. 만약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므로(딤후 3:16)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 불리워졌다(요 1:1, 14, 계 19:3). 따라서 말씀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과 같다.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담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실질적이고, 살아 있고, 빛 비추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방해하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 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훈련이 없음

당신이 말씀에 올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말씀에 올 때 성실한 훈련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없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마음 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사람은 강요에 의해 학교에 출석할 수 있으나 교육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그는 학교에 가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없을 수 있다.

나뉘어진 마음

당신의 마음에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나뉘어진 마음의 문제이다. 당신의 마음이 두셋,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젊은 사람은 많은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마음을 나뉘게 한다. 어떤 하나가 마음의 한 부분을 점령하고, 다른 어떤 것이 또 다른 부분을 점유한다. 젊은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세상적인 오락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두 부분, 즉 선의 부분과 악의 부분으로 나뉘어질 때에는 악의 부분이 항상 유력하다. 이것은 천연적인 법칙 내지 원칙인 것 같다. 그의 마음에, 반대되는 두 의도가 있다.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와 참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 거짓말을 하려는 악의 의지가 진실을 말하려는 선의 의지를 이긴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혹은 나뉘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심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와야 한다. 열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마음이 없음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또 다른 문제는 말씀에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마음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에 전혀 마음이 없는 듯한 사람들도 있다. 내적으로, 그들은 죽은 나무와

같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는 성경을 읽는 데서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마음의 기능이 전혀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올 때 마음 없는 죽은 나무와 같다.

가리운 것과 장애물과 방해물들

마음에 관계된 또 하나의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당신을 가리게 하고 주님과 분리되게 하고, 주님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것과 관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이 주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 필사적이라 해도 당신 안에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에워싸고 점령하고 소유한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신 안에 숨겨진 죄가 거짓말을 하거나 주님이 그것을 다루실 것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감추인 죄는 당신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을 걸리게 했고 당신에게는 그 무례함을 용서할 의도가 없다 하자. 당신은 용서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분명 죄이다. 당신은 이 죄나 다른 종류의 죄들을 사람에게 숨기고 주님에게까지 숨기려 할지 모른다. 당신 안에 이렇게 숨겨진 죄가 있고나서 성경에 올 때에는 당신에게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대하려는 갈망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헌신에 관하여 때때로 주님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하며 그분에게 설득당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우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하여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의견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설득당하기를 꺼려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 집착하고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은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소극적인 마음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것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소극적인 일들을 처리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빛의 영역

성도들은 자주 그들이 말씀을 읽고 빛을 본 것을 간증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받는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서 나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어떤 의견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공물을 구할 때마다 말씀에 오면 내가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내가 어떤 특별한 빛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

말씀에 올때마다 우리는 빛에 온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요일 1:5). 당신이 태양 빛 아래 서 있을 때 당신은 빛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말씀에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빛 안에 있고 빛 아래 있으며, 단지 빛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성경 전체가 빛의 책이 된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성경이 빛 비추는 빛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하나님의 체현인 유일한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은 사실상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성한 빛의 농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올 때마다 빛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빛 비추어진 방 안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빛 비추어진 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만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의 체험에서 빛 비추어지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께 공물을 구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책이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의 말씀을 읽은 후 당신은 많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빛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신성한 말씀이라는 증거이다. 당신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빛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씀을 읽거나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성경의 몇 구절을 기도로 읽는다면 당신은 빛 안으로 인도되었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에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빛 안으로 와서 빛의 영역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때 자연스럽게 빛을 받고 절대적으로 빛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은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공급받는다 (시편 119 편 25, 50 절). 우리의 영적 경험에서, 첫째로는 빛을 가지게 된다. 그런 후에 그 빛이 생명이 되어야 한다. 생명은 빛보다 더 깊은 것이다. 빛이 올 때는 언제든지 또한 생명이 온다. 사실 생명 안에 빛이 포함된다. 요한복음 1 장 4 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 말한다. 생명이나 빛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대개 빛이 생명보다 먼저 온다. 창세기 1 장에 따르면 먼저 빛이 오게 되고 그런 후에 생명의 각 방면들이 나타난다.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 없이 빛을 가질 수 있다. 빛은 주로 혼, 특히 생각의 영역과 관계된다. 생명은 분명히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빛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생명이 될 때까지 더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우리의 상태가 옳고 정상적이라면 말씀에 올 때 빛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언급해 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빛이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게 될 때 자발적으로 영을 훈련하게 되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기도로 영을 훈련함으로 그 빛이 영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것이다. 혼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말씀이 빛이 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된다.

우리의 체험은 생명 공급이 빛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빛이 먼저 온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빛이 영 안에 도달하여 더 깊어질 때에는 언제든지 이 빛이 생명이 되고 우리는 생명 공급을 받게 된다.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의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먼저 읽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나서 읽든지 차이가 없다. 중요한 점은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말씀으로 적셔짐

우리의 체험을 통해 볼 때 생명 공급은 우리를 적셔지게 한다. 첫째로 빛 비춤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 생명 공급을 갖게 되며 셋째로 적셔짐을 갖게 된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체험했다. 시편 1 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하고 이 뿌리에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작은 뿌리털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면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적당한 뿌리가 없고, 또 어떤 나무들은 뿌리는 있는데 뿌리털이 없다.

체험면에서 무엇이 뿌리털인지 의아할 것이다. 뿌리털을 가지려면 매우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종종 우리는 너무 거칠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세밀함이 부족하여 섬세한 뿌리털이 부족하다. 뿌리털을 주의하지 않고 큰 뿌리만 주의하기 때문에 뿌리털의 물과 세밀한 접촉을 통하여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말씀으로 적셔지려면 거친 방법이 아니라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한다.

거친 방법으로 말씀을 접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데 주의하지 않고 단순히 눈과 입으로만 읽는 것이다. 거친 사람들은 얕다. 그들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지만 적당한 뿌리가 없다.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 그렇다. 그들은 강가에 심겨진 사람이지만 너무나 피상적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외적(外的)이어서 육신의 눈과 입으로만 아는 문제이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보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지 않다. 말씀에 대충대충 오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뿌리가 없어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지적해 온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뿌리는 있지만, 섬세한 뿌리털이 없다. 우리는 섬세한 방법으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존재가 세밀한 방법으로 더 깊이 말씀 안에 잠겨져야 한다. 체험에서 보면 말씀을 좇아 말씀의 영 안에 들어올 때 뿌리털을 갖게 된다. 그런 후 이 뿌리털은 생명을 흡수한다.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영 안에 더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과 더욱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증명한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우 세밀하다. 조잡하거나 거칠지 않다. 거칠지 않고 여전히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매우 섬세한 사람이 된다. 누군가가 거칠다면 그는 확실히 육 안에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섬세한 사람은 혼 안에 있다. 그러나 그가 매우 섬세하다면, 그는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 공급을 흡수하는 뿌리털은 영 안에서만 발견된다.

뿌리털을 통하여 우리는 물의 형태인 음식, 즉 생명 공급을 흡수한다. 육의 음식을 먹을 때에도 물이 필요하다. 물 없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흡수할 수 없다. 영적 체험에서 비추어 볼 때 음식공급은 물 안에 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모든 영양분은 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작은 뿌리털은 물을 흡수하여 물 안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양이 되는 음식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물이 되어야 한다. 이 물은 입이나 마음이 아니라 영 안에 있다. 생명수는 항상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도함으로써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전존재가 영 안에 들어가고 말씀도 또한 영 안에 들어간다. 사실상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과 함께 영 안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생수를 발견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림

이러한 열 가지 축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축복-우리의 분깃으로 하나님 자신을 누림-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119 편 57 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가질 때, 빛과 생명과 물과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모든 유익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된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편 119 편을 쓴 사람은 주님이 그의 분깃이었음을 분명히 말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은 심히 위대한 일이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시편 119 편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우리는 빛을 영접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우리는 생명과 생수를 또한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다른 모든 축복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는 한, 모든 것이 있다. 반복하거나, 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분깃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미덕들이거나 속성들이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깃이므로, 우리는 해방과 구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우리를 주님 자신에게 데려간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0)

추가로 읽을 말씀:

1.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60
2. 미니스트리 2015 년 여름호- 출애굽기(2) 결정연구, 메시지 4